

iM Weekly Credit

26~30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공사채 공급 트렌드의 변화 예상

Credit Brief

[크레딧] 이승재 2122-9143 lsj7845@imfnsec.com

Check Point

1. 26~30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리뷰: 택지 및 주택공급 확대 및 고속도로 건설 투자 등으로 SOC 부문, 그 중 LH 중심으로의 부채 확대
2. 한전은 사채발행 특례 일몰과 재무개선 기조로 채권 순발행 제한 가능성, LH의 경우 정책사업 확대에 따른 자금 소요 증가 전망. 공사채 내 공급 트렌드의 변화 전망
3. 전략: 공사채와 은행채 간 갭 차이를 노린 전략. 공사채 대비 은행채. 은행채 중 시중은행채 우위. 만기로는 3년 구간은 은행-공사채 상대가치가 상당부분 정상화. 1년 - 5년은 상대적으로 추가 캐리 확보 가능해 편입에 유리

26~30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리뷰: 택지 및 주택공급 확대 및 고속도로 건설 투자 등으로 SOC 부문, 그 중 LH 중심으로의 부채 확대

26년 9월 1일 재정경제부에서 26~30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발표했다. 대상은 자산 2조원 이상 또는 정부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37개 기관으로, 전년(35개) 대비 근로복지공단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신규 편입됐다. 37개 기관 부채는 26년 778.3조원에서 30년 997.4조원으로 219.1조원 증가하고, 부채비율은 208.2%에서 216.6%로 8.4%p 상승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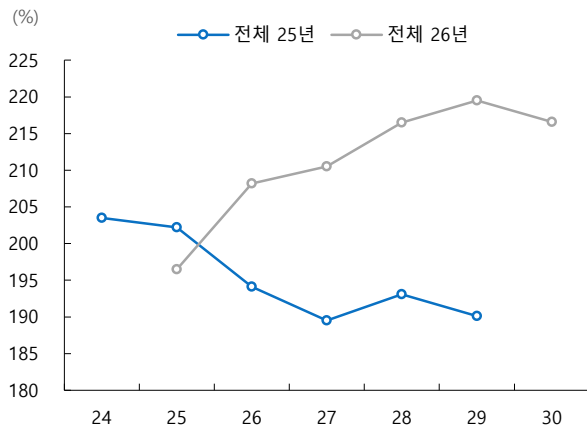
보도자료에서 이번 계획은 국민 주거복지 향상, 재생에너지 대전환 등 기관별 고유의 정책사업 투자계획과 재무여건 개선을 위한 자구노력을 포함했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정책 사업으로는 LH의 신속한 주택착공, 주거복지 강화를 위한 매입 임대 확대 등이 있다. 에너지 부문에는 안정적 전력공급 위한 에너지고속도로의 조기구축 추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가 반영되었다. 또한 소상공인·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공급도 지속할 예정임을 명시했다.

핵심은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서 LH를 제외한 부채비율을 별도로 병기했다는 점이다. 보도자료에서는 30년까지의 계획기간 간 부채증가와 부채비율 악화는 LH 재무여건의 근본적 변화가 주요인이라고 명시했다. LH가 제출한 계획에 따르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신규주택 착공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신·구축 매입임대주택 사업도 수요에 맞춰 지속할 예정이므로 관리해야 할 임대주택 물량도 크게 늘어나는 등 재무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주택착공 물량 확대와 사업시기 조기화, 그리고 직접 주택건설 등 사업방식 변경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LH 부채는 25년 173.7조원에서 30년 372.8조원으로 5년간 199.1조원(2.1배) 증가하고, 부채비율은 230.8%에서 351.2%로 120%p 상승한다. 전년(25~29년) 계획에서 29년 부채 261.9조원, 부채비율 260.3%를 제시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부채는 72.9조원, 부채비율은 86%p 상향되었다. LH를 제외한 나머지 36개 기관의 부채는 30년 624.6조원으로 26년 580.7조원 대비 증가(+43.9조원)하지만, 부채비율은 176.2%로 26년 196.8% 대비 개선(-20.6%p)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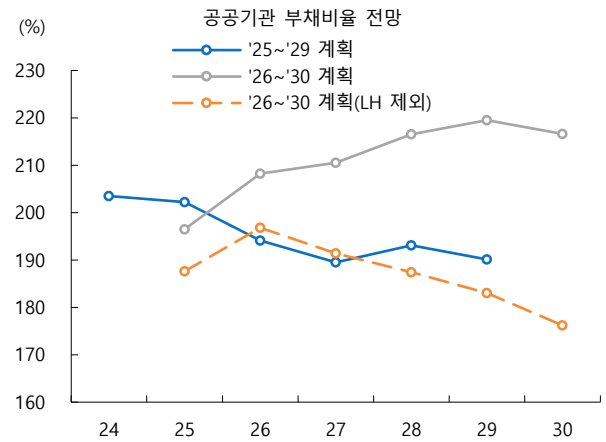
결론적으로 전체 공공기관 부채 증가(26년대비 30년)에서 SOC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87%이다. 그리고 SOC 부문 증가분에서 LH가 차지하는 비중이 92%, 전체 공공기관 부채 증가분에서는 80%이다. 공공기관 부채 증가분의 무게 중심이 주택 및 주거복지 관련 SOC 사업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그림1. 25년 대비 26년 공공기관 부채비율 경로: 하락에서 상승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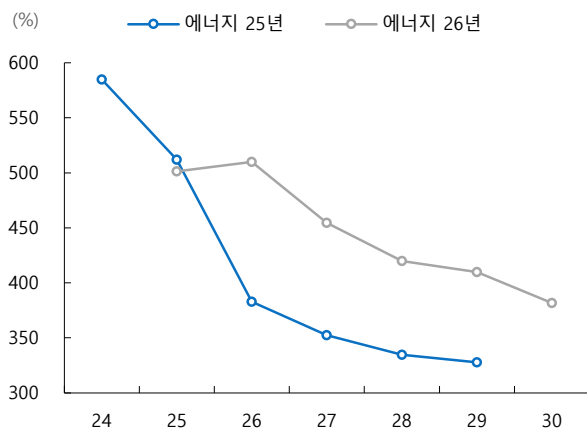
자료: 재경부,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2. 이번에는 LH 제외한 공공기관 부채비율 전망을 명시: LH의 영향도 감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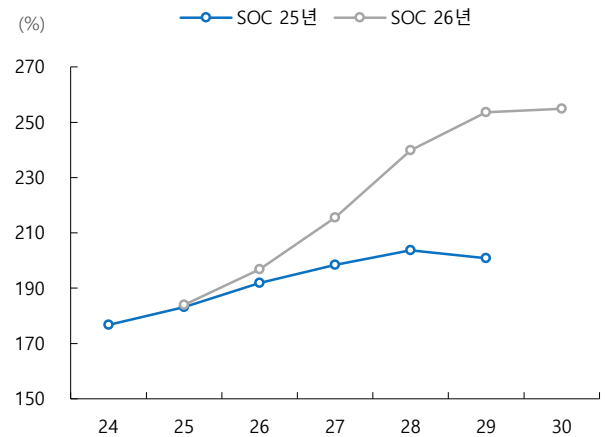
자료: 재경부,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3. 에너지 공공기관 부채비율은 작년 계획대비 개선 지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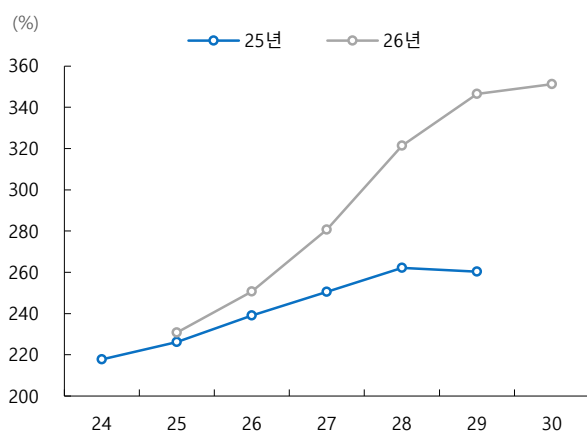
자료: 재경부,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4. SOC 부문은 부채비율 전년 계획과의 갭이 커져 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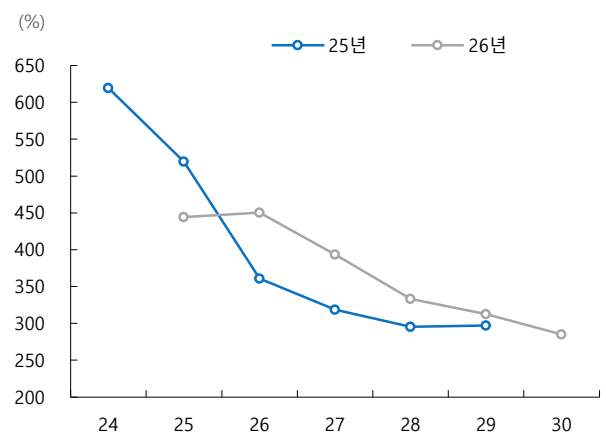
자료: 재경부,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5. LH 부채비율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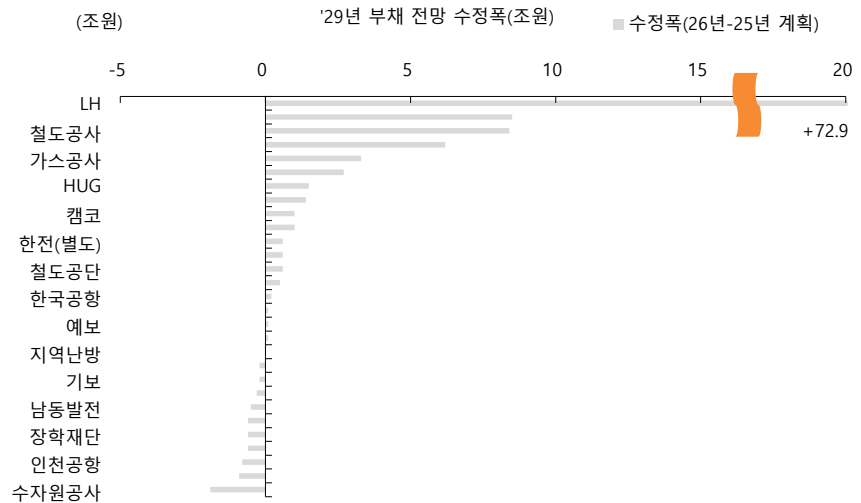
자료: 재경부,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6. 한전 부채비율 전망



자료: 재경부,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7. 29년 부채 전망(전년계획 대비 수정 폭) LH가 +72.9조원으로 대부분을 차지



자료: 재경부, iM증권 리서치본부

한전은 사채발행 특례 일몰과 재무개선 기조로 채권 순발행 제한 가능성, LH의 경우 정책사업 확대에 따른 자금 소요 증가 전망. 공사채 내 공급 트렌드의 변화 전망

공사채 발행 트렌드의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한다. 공사채 잔고 중 한전 및 LH 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40%를 넘는다. 22~23년 한전채 대규모 순발행 이후 디레버리징 기조 및 단기자금으로의 조달이 나타나면서 한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졌다. 하지만 공공주택 보급 사업 등에 따른 LH의 자금 소요 확대로 공사채 순공급의 중심이 한전에서 LH로 이동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미 25년 이래로 한전과 LH의 12개월 누적 순발행을 비교했을 때, 대부분의 순발행을 LH가 주도하고 있는 흐름이다.

작년 9월 공시된 LH의 25~29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통해 향후 LH 채권 잔고 증가를 대략적으로 파악해볼 수 있다. 25년 LH 중장기재무계획 상 부채 증가분 중 공사채 증가 비중은 26~29년까지 33.3~57.7% 수준이다. 26년 재경부의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서 제시된 LH의 26년대비 27년 총부채 증가가 +38.7조원 수준이므로 과거 계획 상의 공사채 증가 비중을 단순 적용할 경우 12.8~22.3조원의 순증 시나리오가 산출된다. (공시 자료 기반 단순 정량 추정임에 유의, 25년말 LH 채권잔고 46.0조원 → 26년 9월 현재 55.3조원으로 순증은 +9.3조원, 기존 계획 상 +10.8조원). 실제 조달규모 추정은 추후 공시되는 26년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통해 구체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는 한전의 순공급 제한을 LH의 순발행이 상쇄하는 구조로 공사채 공급 트렌드가 이동할 것으로 전망한다. 한전의 경우 사채발행한도 확대 특례가 27년말 일몰되어 채권 순발행세가 제한되는 구간이 지속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한전(별도 기준)의 경우 22년 대규모 적자 이후 현금흐름이 개선되는 과정에서 디레버리징이 발생하고 있다. 24~25년간 (+) 잉여현금흐름을 창출했으며 동기간 한전채 또한 순상환을 기록했다. 이를 반영해 한전채 투자자 보유 잔고는 대체로 1년 전 대비 감소했다. 26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서는 에너지 부문에서 한전 및 가스공사의 영업이익 개선 등으로 부채비율이 지속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전력망 등 투자 확대에 따른 CAPEX 규모 증가 추이가 채권 발행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은 존재한다.

반면 LH는 공급 증가량이 투자자별 보유잔고 증가로 비교적 뚜렷하게 이어지고 있다. 1년간 LH 채권 잔고 변화는 운용, 은행, 보험 순으로 큰 폭 증가했다. 특히 LH 채권의 경우에는 제도적 결손 보전 대상 공공기관으로 분류되어 위험가중치(RW)가 0인 채권으로 분류되므로 자본규제 준수가 필요한 은행 등 위주로 구조적 수요가 뒷받침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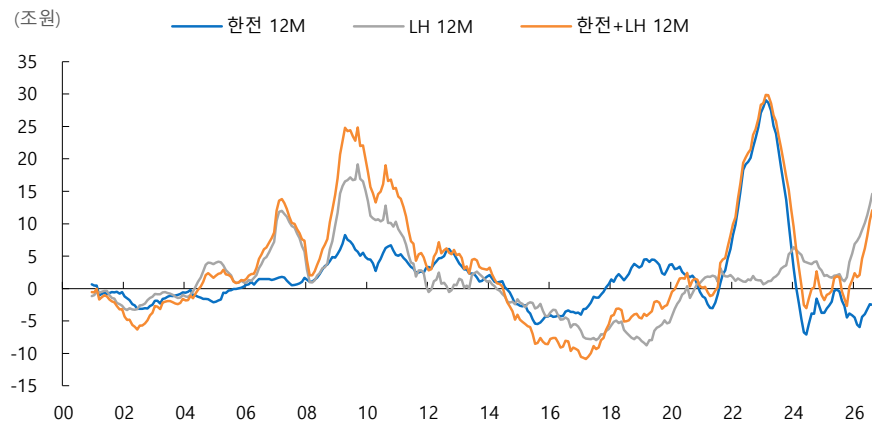
표1. 25년 LH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상 제시된 부채 증가 및 공사채 잔고 증가분: 부채 증가분 중 공사채 비중은 33.3~57.7% 수준

구분	총부채	연간 부채 증가	공사채 잔고	연간 공사채 증가	부채 증가 중 공사채 비중
25	170.2조	-	53.8조	-	-
26	192.5조	+22.3조	64.7조	+10.8조	48.7%
27	219.5조	+27.1조	74.1조	+9.4조	34.8%
28	246.2조	+26.6조	83.0조	+8.9조	33.3%
29	261.9조	+15.7조	92.0조	+9.1조	57.7%
25~29 누적	+91.7조		+38.2조		41.7%

자료: 한국토지주택공사 25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iM증권 리서치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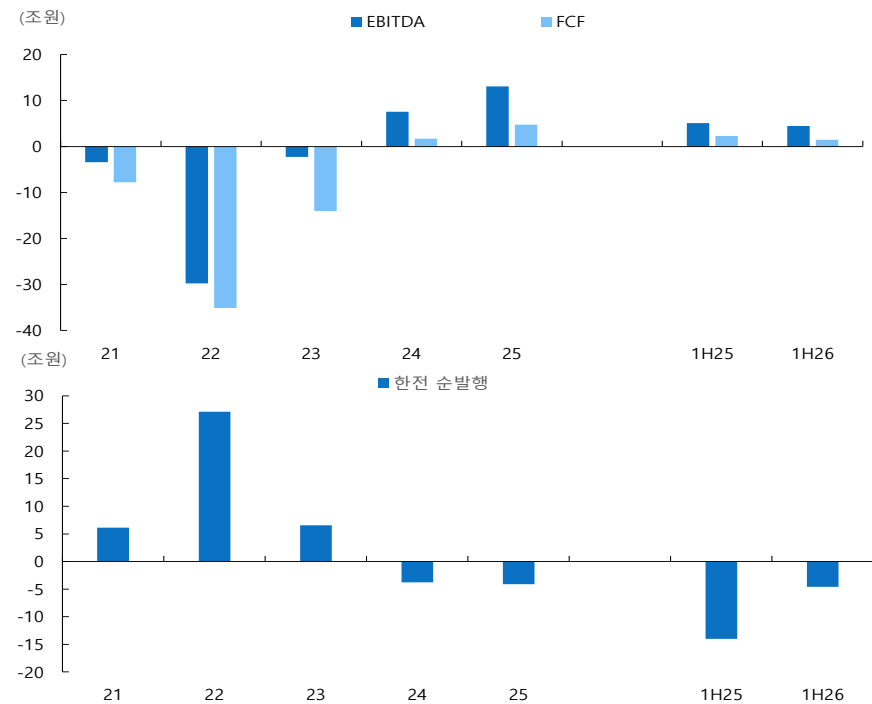
주: 연간 증감 및 비중은 원자료(억원) 단위 기준으로 산출, 조원 단위 표시는 반올림

그림8. 12개월 누적 순발행 로테이션: 한전 vs LH vs 합계: 한전 상환분을 LH가 상쇄하는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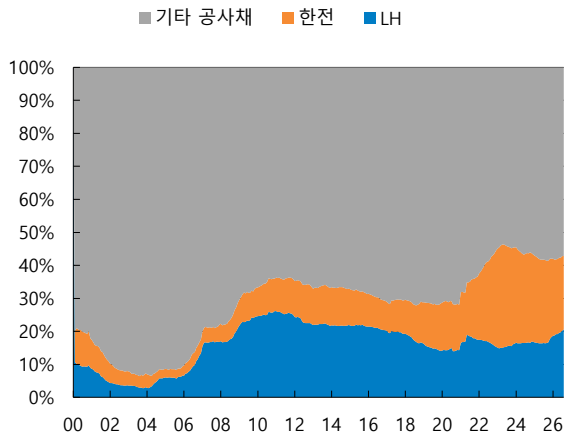
자료: 인포맥스,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9. 한전채 순발행은 현금흐름과 유사한 궤적을 가짐. 현재의 경우 (+) 현금흐름을 나타내고 있어 채권 순상환 기조에 기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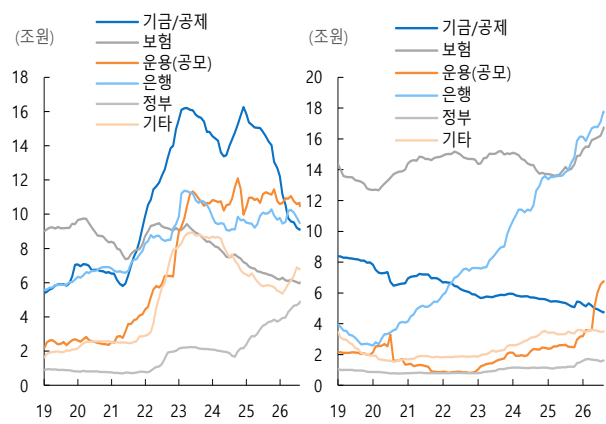
자료: 인포맥스, NICE신용평가,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10. 한전과 LH가 공사채 잔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0%를 넘는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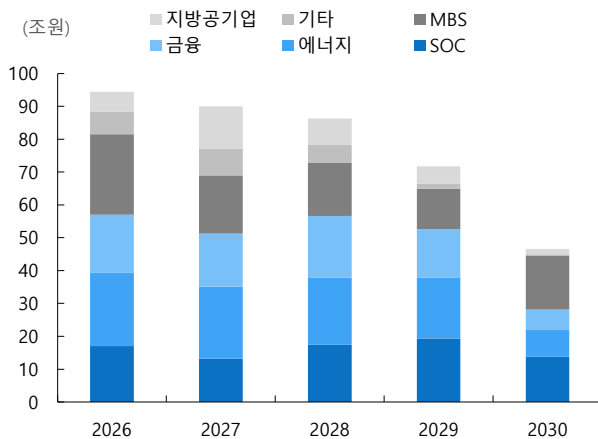
자료: 인포맥스,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11. (좌)한전채 투자자별 잔고 & (우) LH채권 투자자별 잔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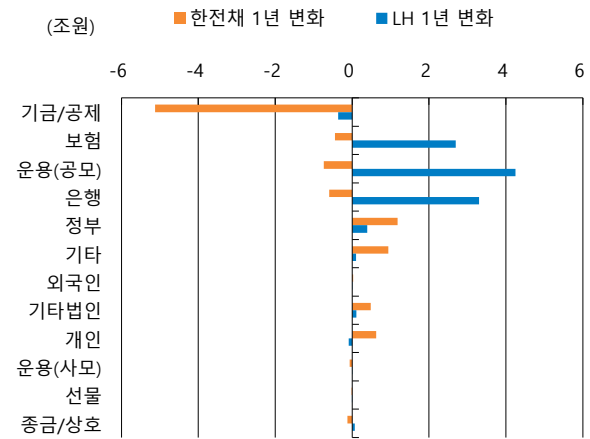
자료: 인포맥스,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12. 26~30년 공사채 섹터별 만기도래액 비교



자료: 인포맥스,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13. 투자자별 한전 및 LH채권 잔고변화: 한전채는 발행물 감소와 만기상환에 따른 투자자 잔고 감소, 이를 LH가 흡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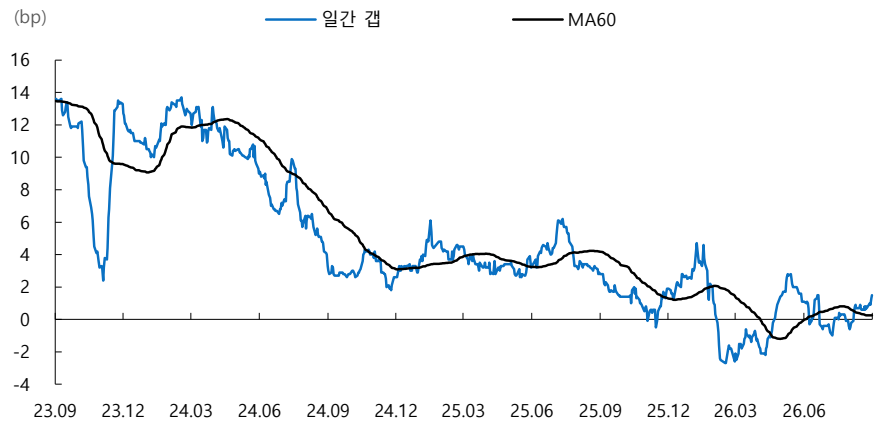
자료: 인포맥스, iM증권 리서치본부

전략: 공사채와 은행채 간 갭 차이를 노린 전략. 공사채 대비 은행채. 은행채 중 시중은행채 우위. 만기로는 3년 구간은 은행-공사채 상대가치가 상당부분 정상화. 1년 - 5년은 상대적으로 추가 캐리 확보 가능해 편입에 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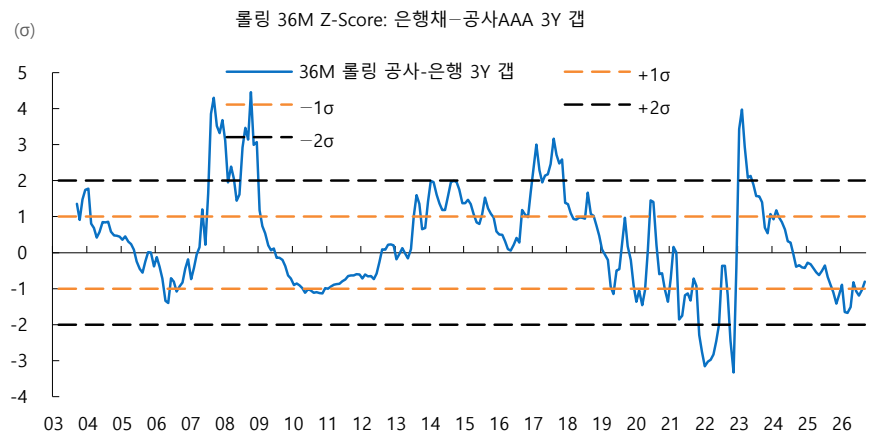
공사채의 발행량이 27년 점진적으로 증가한다고 가정했을 시,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은행채 편입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은행채 내에서는 산은채 대비 시은채 스프레드 갭이 3년물 기준 +9bp 선을 25년 하반기 이래로 형성하고 있어 상대적 캐리 매력도가 존재한다.

은행-공사채 간 3년물 기준 스프레드 갭은 올해 수차례 역전된 바 있다. 2년 간의 시계열에서도 은행-공사채 간 갭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현재 +1.5bp 구간에서 머무르고 있다. Z-Score 기준으로 본다면 현재 스프레드 갭 수준은 -1σ 수준이다. 다만 스프레드 갭을 구간으로 나누어 분석했을 시, 현재 위치는 00년~현재까지의 표본에서 두 번째로 가장 많은 분포를 차지한 구간에 속해 있다. 현재의 스프레드 수준은 Z-Score 상 상대적 고평가 구간이나 장기 분포 상으로는 두 번째로 가장 빈번하게 관찰된 가격대에 위치한다. 그리고 수급 상으로 공사채의 공급 증가가 본격적으로 반영된다면 은행채와 공사채 간 스프레드 갭은 축소, 혹은 역전이 이어질 가능성이 공존한다. 향후 흐름 상으로는 공급 측에서 나타나는 차별화가 스프레드 갭, 즉 벨류에이션 매력으로 연결될 개연성이 존재한다. 10~13년(공공택지 보급 등에 따른 공사채 발행 증가), 22년(우-러 전쟁으로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한전채 발행량 증가)이 수급 상 나타난 초우량물간 스프레드 역전 장기화 사례로 꼽을 수 있다. 만기별로는 26년 3월부터 점진적으로 스프레드 갭 역전이 해소(과열 해소)되어 오는 구간에 있으나, 1년과 5년 구간이 상대적으로 스프레드 갭이 높아져 있으므로 캐리 상 우월한 측면이 존재한다.

그림14. 은행-공사채 3년물 스프레드 갭: 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공사채와의 갭은 축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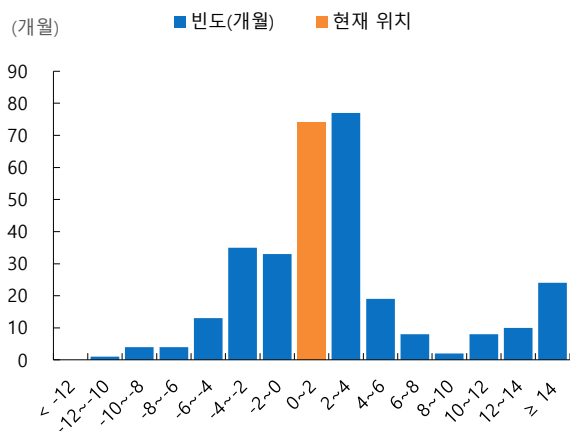


자료: 인포맥스,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15. 36개월 Rolling 은행-공사 3년물 스프레드 갭 Z-Score 기준으로 보면 현재 구간은 -1σ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음

자료: 인포맥스, iM증권 리서치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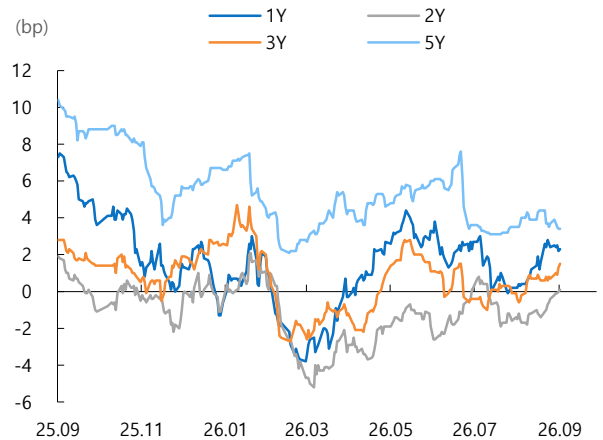
그림16. 은행-공사채 3Y 스프레드 갭을 월간 평균 기준으로 구간을 나누어 보았을 시 현재 분포 위치



자료: 인포맥스, iM증권 리서치본부

주: 표본의 경우 00년~26년 9/4일까지

그림17. 은행-공사채 간 만기별 스프레드 갭 추이: 상대적으로 고평가 구간이었던 단기물도 점차 매력도 상승 중



자료: 인포맥스, iM증권 리서치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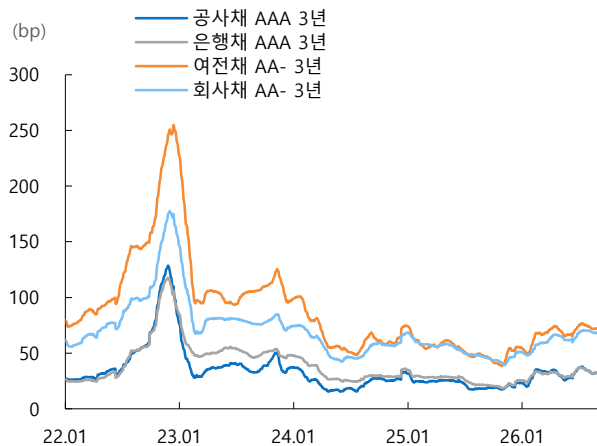
표1. 주요 채권 금리 및 스프레드 변동

구분		금리					신용스프레드					금리 변동(1W, bp)					신용스프레드 변동(1W, bp)				
		1Y	3Y	5Y	7Y	10Y	1Y	3Y	5Y	7Y	10Y	1Y	3Y	5Y	7Y	10Y	1Y	3Y	5Y	7Y	10Y
국고채		3.48	3.89	4.10	4.23	4.35	-	-	-	-	-	3.0	9.0	7.3	6.9	6.4	-	-	-	-	-
공사채	AAA	3.79	4.21	4.39	4.44	4.53	50.8	32.3	29.4	21.1	17.8	5.2	9.0	7.5	6.9	6.3	2.8	0.0	0.2	0.0	-0.1
은행채	AAA	3.81	4.22	4.42	4.52	4.78	53.1	33.5	32.9	28.4	42.5	4.9	9.7	7.2	7.0	6.4	2.5	0.7	-0.1	0.1	0.0
여전채	AA+	3.95	4.45	4.52	4.79	5.71	67.0	56.3	42.0	55.9	136.3	2.8	8.4	7.3	6.9	6.4	0.4	-0.6	0.0	0.0	0.0
	AA0	3.97	4.51	4.69	5.02	5.89	68.7	62.9	59.6	78.5	153.6	2.8	8.4	7.3	6.9	6.4	0.4	-0.6	0.0	0.0	0.0
	AA-	4.03	4.60	4.78	5.23	6.11	74.9	71.5	68.7	99.3	176.1	2.7	8.4	7.3	6.9	6.4	0.3	-0.6	0.0	0.0	0.0
	A+	4.39	5.38	5.92	6.12	6.81	110.6	149.9	182.0	189.2	245.8	2.8	8.4	7.3	6.9	6.4	0.4	-0.6	0.0	0.0	0.0
	A0	5.06	6.16	6.58	6.65	7.23	177.8	227.2	248.2	241.9	287.9	2.7	8.4	7.3	6.9	6.4	0.3	-0.6	0.0	0.0	0.0
	A-	5.62	6.80	7.23	7.30	7.87	233.5	291.4	313.1	306.6	352.4	2.8	8.4	7.3	6.9	6.4	0.4	-0.6	0.0	0.0	0.0
회사채	AAA	3.88	4.37	4.47	4.55	4.84	60.0	48.2	37.5	32.2	49.1	3.0	8.1	7.3	6.9	6.4	0.6	-0.9	0.0	0.0	0.0
	AA+	3.98	4.47	4.56	4.66	5.13	69.5	58.1	46.8	42.4	77.6	2.9	8.2	7.3	6.9	6.4	0.5	-0.8	0.0	0.0	0.0
	AA0	4.01	4.50	4.63	4.75	5.46	73.2	61.8	53.4	52.2	111.2	3.0	8.1	7.3	6.9	6.4	0.6	-0.9	0.0	0.0	0.0
	AA-	4.05	4.56	4.73	4.95	5.83	76.7	67.3	63.7	71.9	147.8	2.9	8.2	7.3	6.9	6.4	0.5	-0.8	0.0	0.0	0.0
	A+	4.19	4.94	5.40	5.62	6.41	90.8	105.8	130.3	138.8	206.0	2.8	8.2	7.3	6.9	6.4	0.4	-0.8	0.0	0.0	0.0
	A0	4.35	5.21	5.84	6.08	6.87	106.6	132.9	174.8	184.7	252.1	2.9	8.1	7.4	6.9	6.4	0.5	-0.9	0.1	0.0	0.0
	A-	4.62	5.67	6.43	6.61	7.39	133.5	178.5	233.9	237.7	303.5	2.8	8.1	7.4	6.9	6.4	0.4	-0.9	0.1	0.0	0.0
	BBB+	5.68	7.94	8.31	8.41	8.88	239.8	405.2	421.8	417.8	452.5	2.8	8.2	7.3	6.9	6.4	0.4	-0.8	0.0	0.0	0.0

자료: 인포맥스, iM증권 리서치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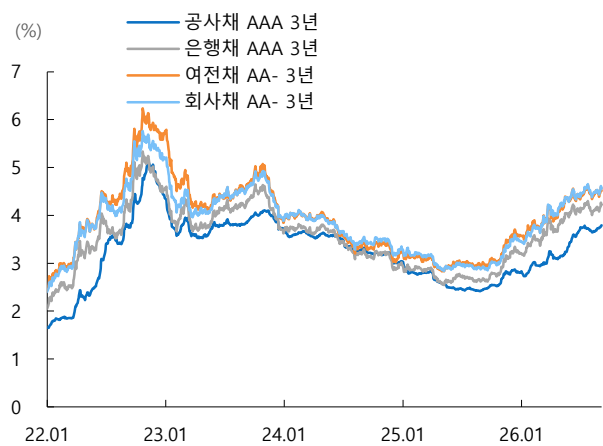
주: 민평4사 평균, 1년물은 동안채 대비 스프레드, 9/4 기준

그림18. 주요 채권 크레딧 스프레드 추이



자료: 인포맥스,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19. 주요 채권 금리 추이



자료: 인포맥스, iM증권 리서치본부

표2. 주간 주요 기업 회사채 발행 현황(수요예측)

종목명	신용 등급	발행일	발행예정액 (억원)	유효수요액 (억원)	만기 (년)	유효경쟁률 (:1)	금리밴드(bp, %)			낙찰금리 (%p, bp)
							기준	하단	상단	
삼양패키징4	A-	2026-09-04	600	910	2	1.52	개별민평	-0.3	0.3	0.12
한화리츠3-1	A+	2026-09-04	800	1,600	1	2	개별민평	-0.3	0.3	0.2
한화리츠3-2	A+	2026-09-04	1,200	3,150	1.5	2.63	개별민평	-0.3	0.3	0.17
롯데지주24-1	A+	2026-09-03	950	2,050	2	5	개별민평	-0.3	0.3	0.06
롯데지주24-2	A+	2026-09-03	550	1,400	3	4	개별민평	-0.3	0.3	0.02
교보생명보험신종자본증권 7	AA	2026-09-01	5,000	4,460	30	1.49	절대금리	4.8	5.4	5.39
KB금융조건부(상)15	AA-	2026-08-31	4,000	5,200	-	1.93	절대금리	4.3	4.9	4.85

자료: 인포맥스, Dart, iM증권 리서치본부

주: 8/31~9/4 기준

표3. 주간 기업 신용등급/전망 변동 현황 (1건/1건)

회사명	평가사	등급변동	적용등급			변동요인
			변경전	변경후	변경일	
동화기업	KIS	전망하향	BBB+/S	BBB+/N	8/31	이익창출력 부진 및 현금창출력 대비 재무부담 상승
한화엔진	KIS	등급상향	BBB0/P	BBB+/P	8/31	업황 개선으로 이익창출력 제고

자료: 신용평가 3사, iM증권 리서치본부

주: BBB+급 이상 무보증 회사채만 기재, 8/31~9/4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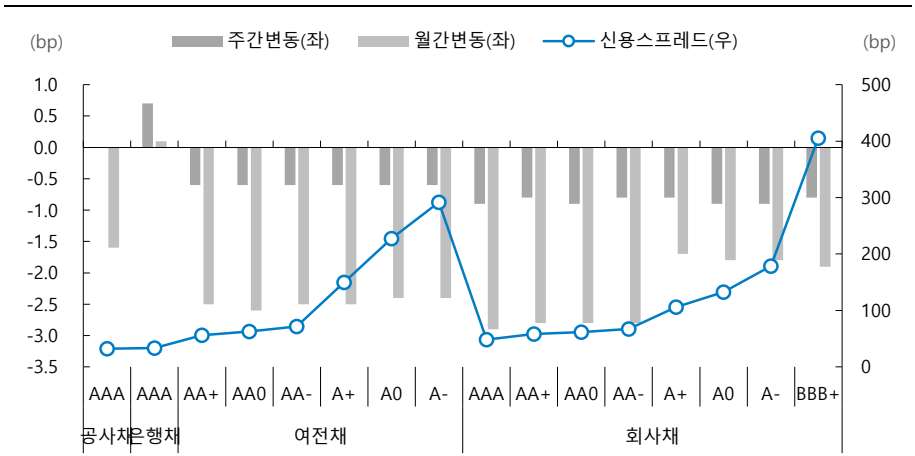
표4. 주간 공사/공단채 발행 현황

종목명	표준코드	신용 등급	발행일	발행액 (억)	만기 (년)	확정금리 (%)	발행사민평대비 (bp)
중소벤처기업진흥채권952(사)	KR351602GG99	AAA	2026-09-04	1,300	3	4.171	1.9
부산교통공사2026-09(녹)	KR354701GG93	AAA	2026-09-04	500	3	4.26	0.9
부산교통공사2026-10(녹)	KR354702GG92	AAA	2026-09-04	72	3	4.390	13.9
한국장학재단26-29(사)	KR356002GG94	정부보증	2026-09-04	1,000	5	4.362	0
한국전력1614	KR350101GG97	AAA	2026-09-03	700	2	4.161	4
한국전력1615	KR350102GG96	AAA	2026-09-03	2,500	3	4.347	3
한국전력1616	KR350103GG95	AAA	2026-09-03	2,200	5	4.561	3
한국가스공사572	KR350801GG90	AAA	2026-09-03	1,000	3	4.297	2
주택금융공사300(사)	KR354401GG96	AAA	2026-09-03	2,100	2	4.023	-1
중소벤처기업진흥채권951(사)	KR351601GG90	AAA	2026-09-02	1,100	5	4.363	0.8
한국장학재단26-28(사)	KR356001GG95	정부보증	2026-09-02	1,000	5	4.361	0
토지주택채권632	KR356102GG93	AAA	2026-09-02	1,000	5	4.403	0.6
토지주택채권631	KR356101GG94	AAA	2026-09-01	1,000	50	4.738	0
한국장학재단26-27(사)	KR356005GG83	정부보증	2026-08-31	500	5	4.264	-1
토지주택채권(용지)26-08	KR356101DG89	AAA	2026-08-31	3,739	3	2.66	-145.2
토지주택채권(용지2)26-08	KR356102DG88	AAA	2026-08-31	883	3	3.83	-28.2
토지주택채권(용지3)26-08	KR356103DG87	AAA	2026-08-31	692	5	4.07	-24
수산금융채권(중앙회)27-0801표24-31호	KR380701GG80	AAA	2026-08-31	1,000	2	4.07	5.3

자료: 인포맥스, iM증권 리서치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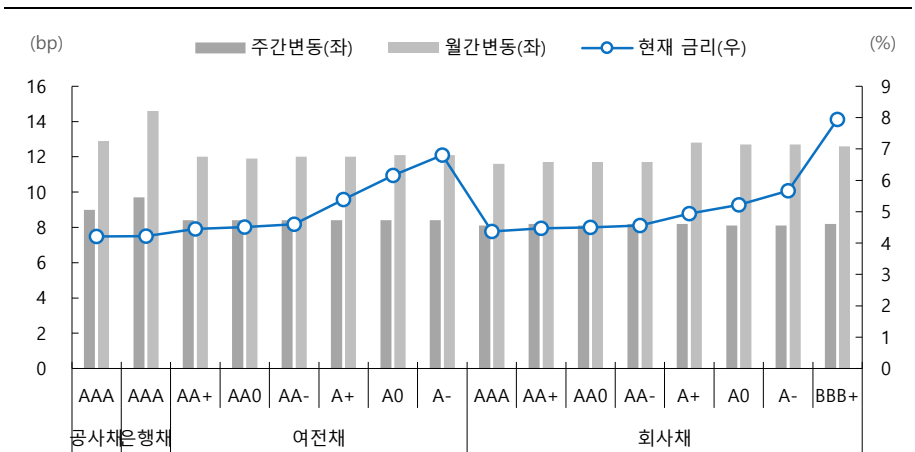
주: 8/31~9/4 기준

그림20. 주요 채권 스프레드 변동(3년물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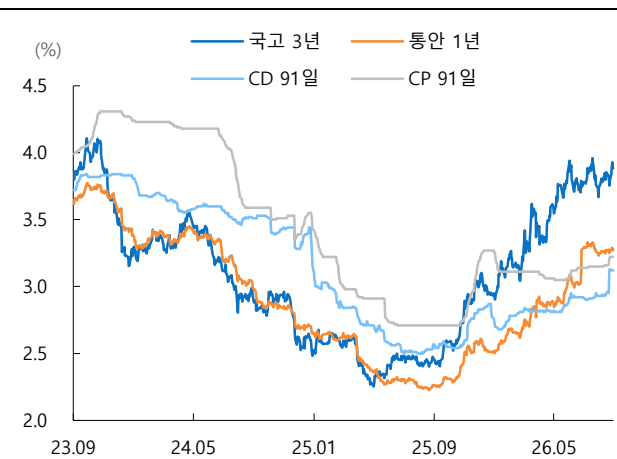
자료: 인포맥스, iM증권 리서치본부
주: 9/4 기준

그림21. 주요 채권 금리 변동(3년물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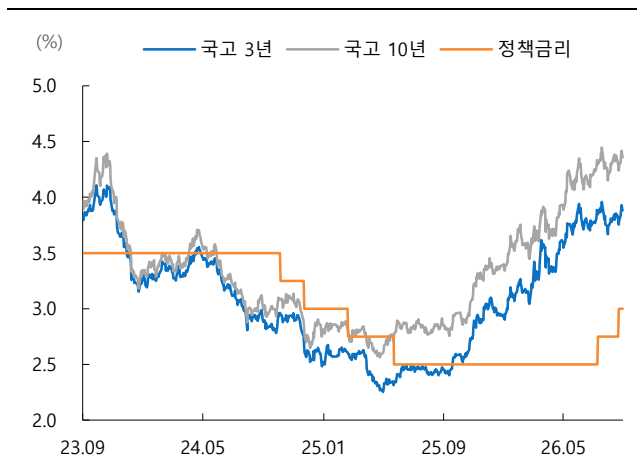
자료: 인포맥스, iM증권 리서치본부
주: 9/4 기준

그림22. 주요 단기 금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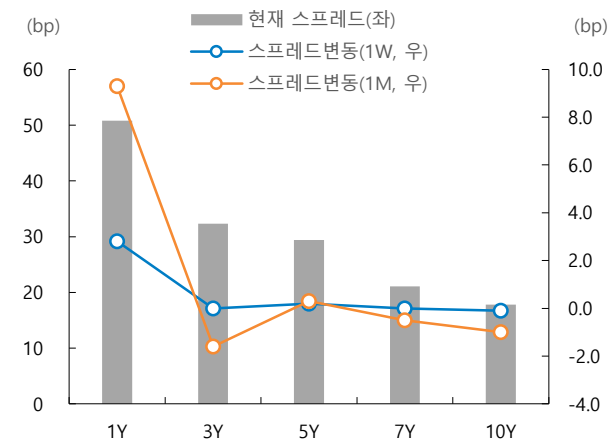
자료: 인포맥스,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23. 국고채 및 정책금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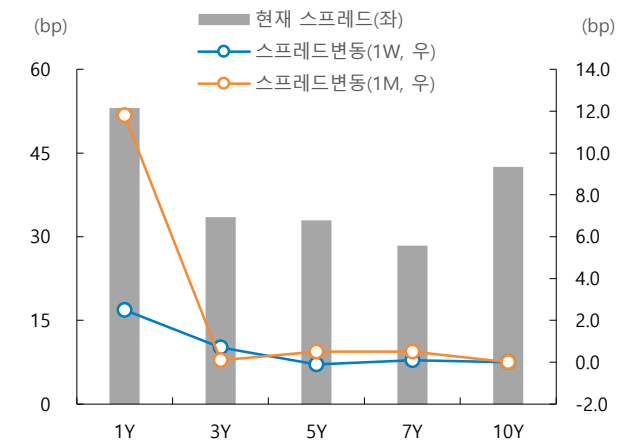
자료: 인포맥스,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24. 공사채 AAA 등급 스프레드 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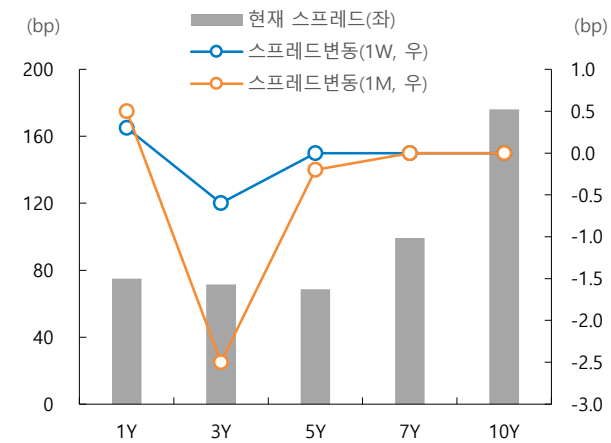
자료: 인포맥스, iM증권 리서치본부
주: 9/4 기준

그림25. 은행채 AAA 등급 스프레드 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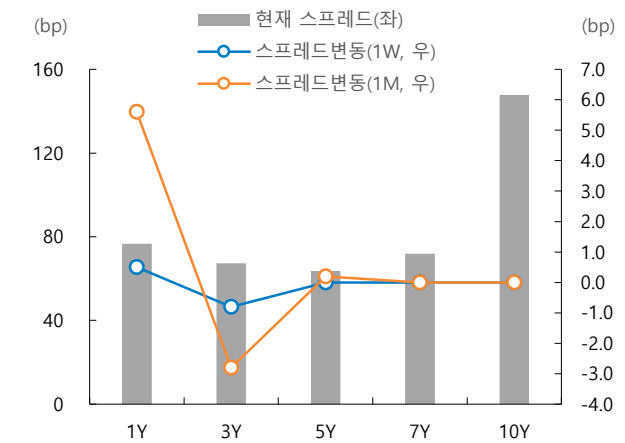
자료: 인포맥스, iM증권 리서치본부
주: 9/4 기준

그림26. 여전채 AA- 등급 스프레드 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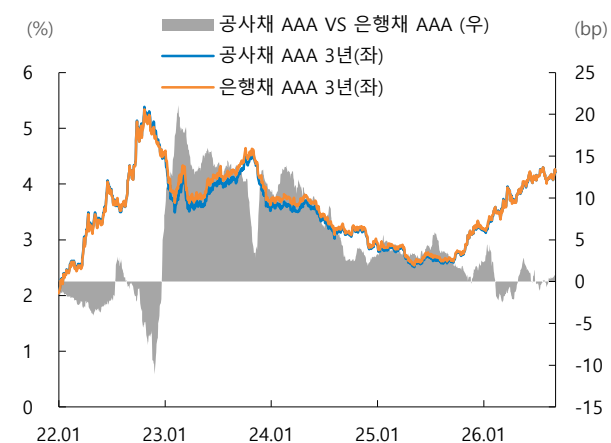
자료: 인포맥스, iM증권 리서치본부
주: 9/4 기준

그림27. 회사채 AA- 등급 스프레드 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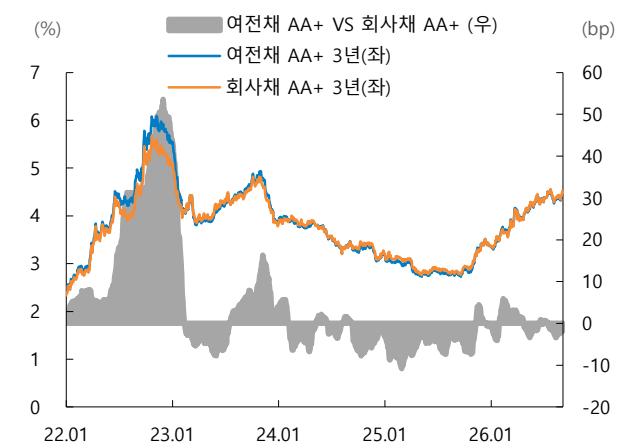
자료: 인포맥스, iM증권 리서치본부
주: 9/4 기준

그림28. AAA 등급간 스프레드 변동(공사채 VS 은행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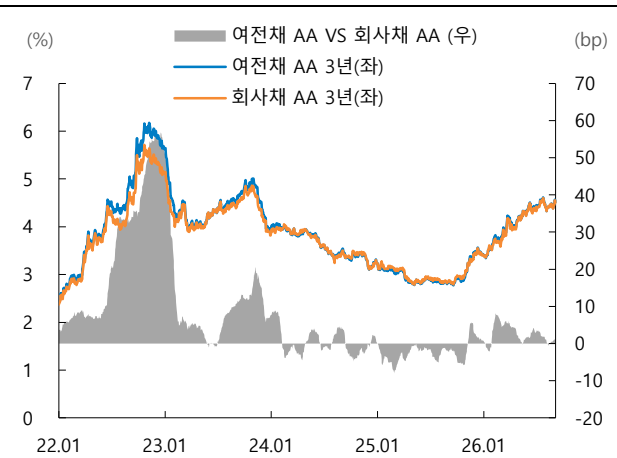
자료: 인포맥스,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29. AA+ 등급간 스프레드 변동(여전채 VS 회사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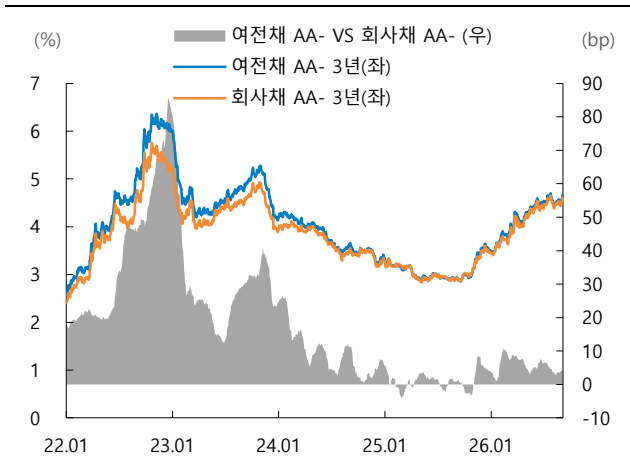
자료: 인포맥스,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30. AA 등급간 스프레드 변동(여전채 VS 회사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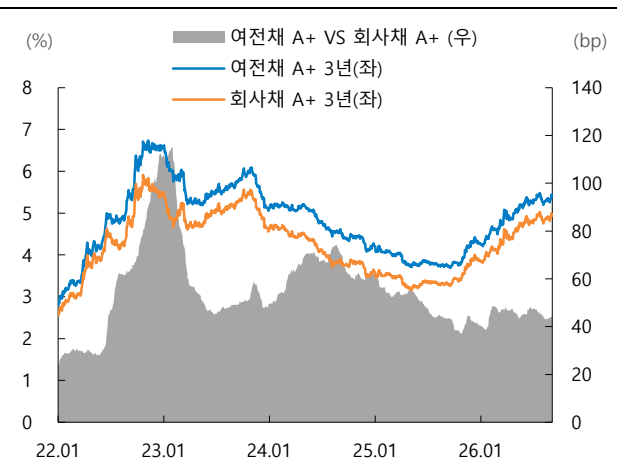
자료: 인포맥스,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31. AA- 등급간 스프레드 변동(여전채 VS 회사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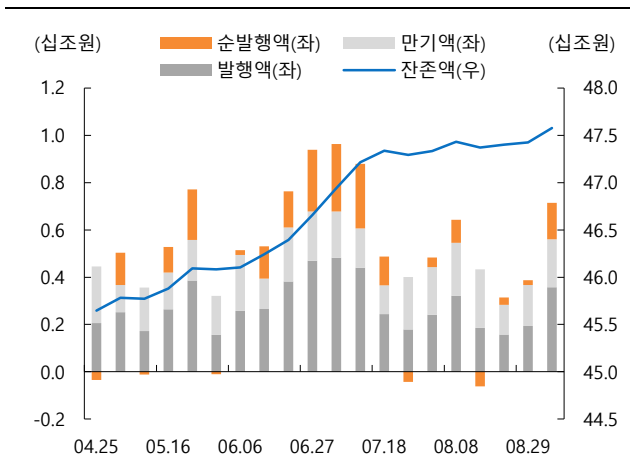
자료: 인포맥스,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32. A+ 등급간 스프레드 변동(여전채 VS 회사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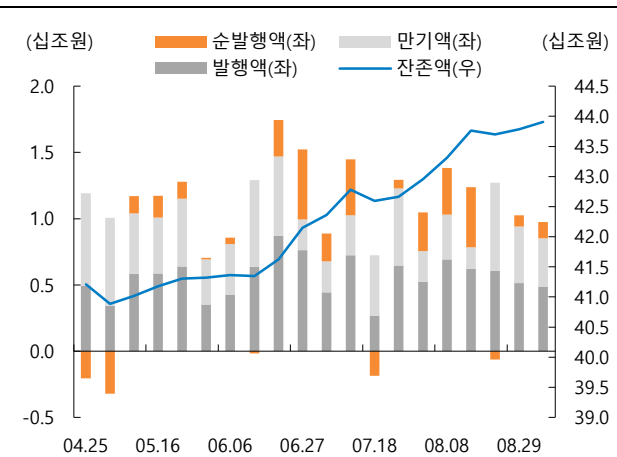
자료: 인포맥스,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33. 공사채 발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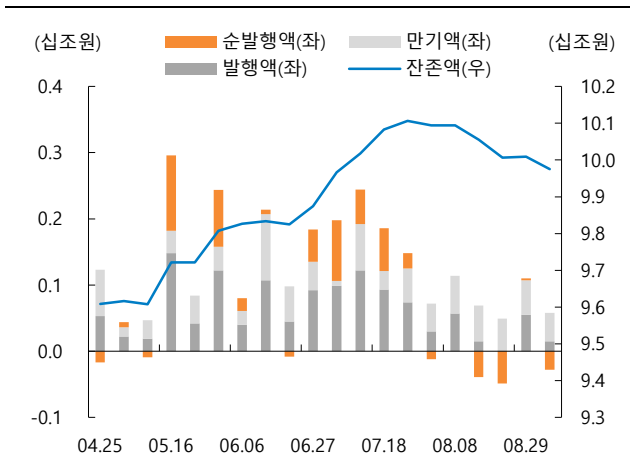
자료: 인포맥스,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34. 은행채 발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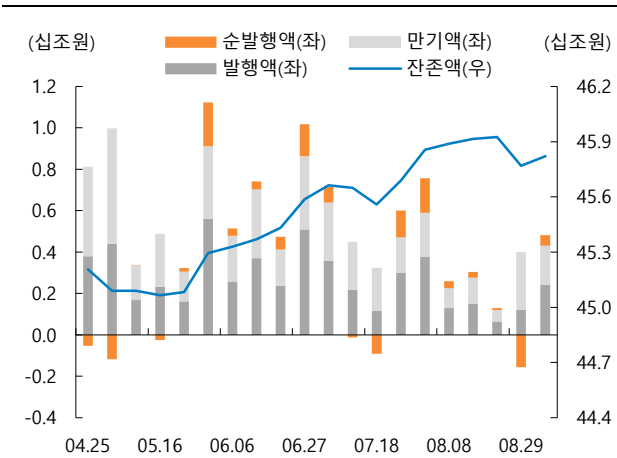
자료: 인포맥스,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35. 여전채 발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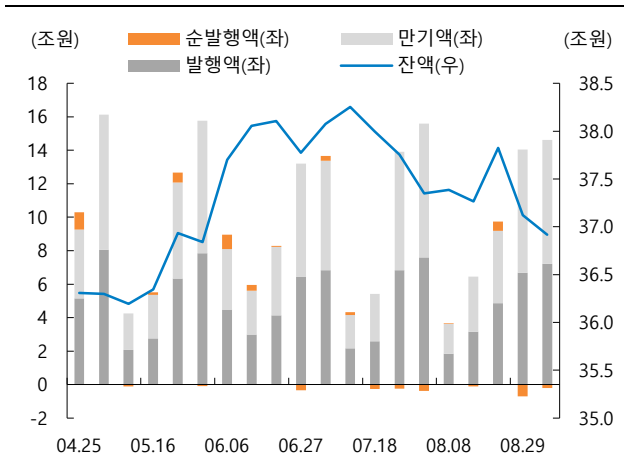
자료: 인포맥스,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36. 회사채 발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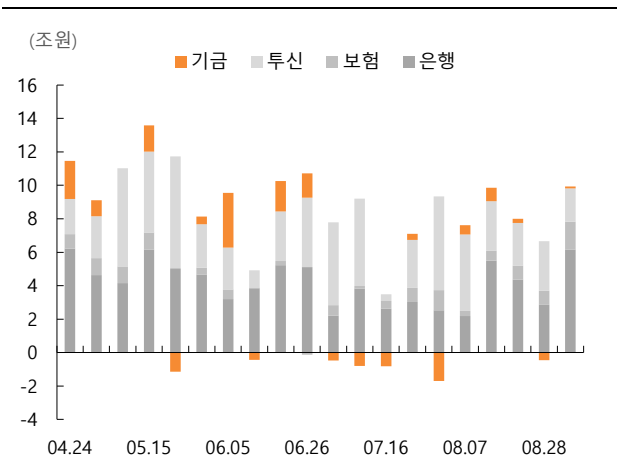
자료: 인포맥스,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37. PF - CP/전단채 발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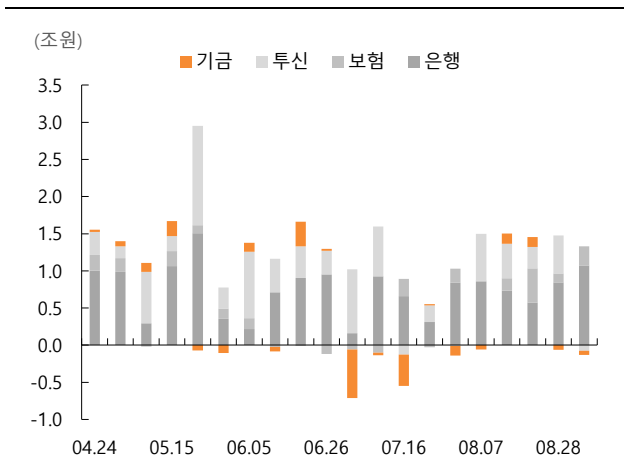
자료: 인포맥스,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38. 전체 채권 순매수 거래대금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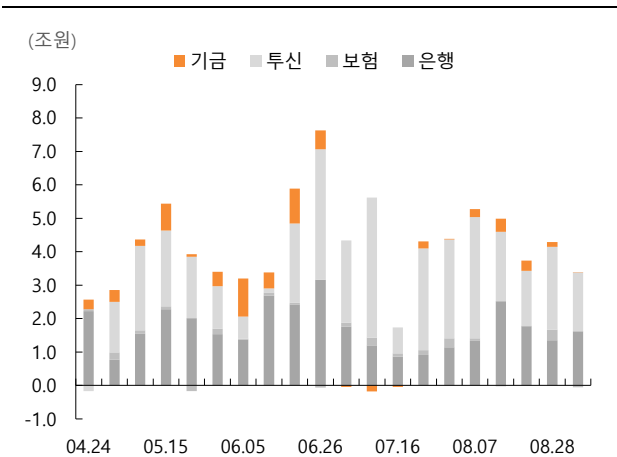
자료: 인포맥스,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39. 특수채 순매수 거래대금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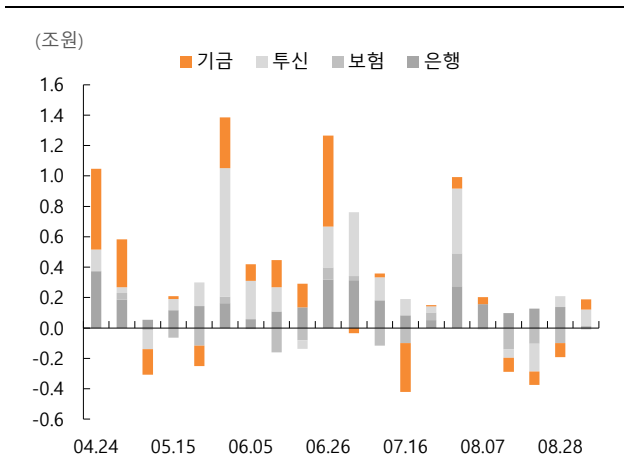
자료: 인포맥스,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40. 금융채 순매수 거래대금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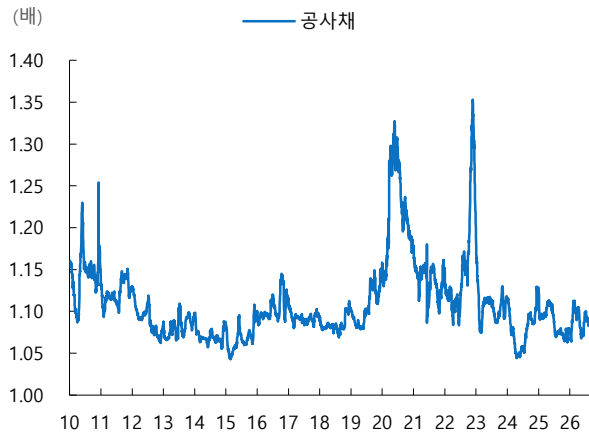
자료: 인포맥스,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41. 회사채 순매수 거래대금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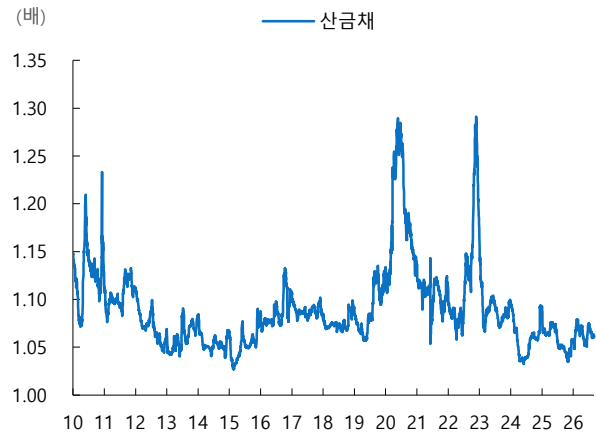
자료: 인포맥스,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42. 공사채 Yield Ratio 추이(AAA 3년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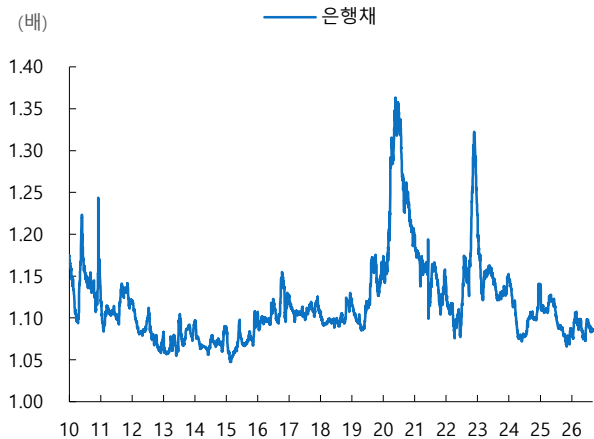
자료: 인포맥스,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43. 산금채 Yield Ratio 추이(AAA 3년물)



자료: 인포맥스,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44. 은행채 Yield Ratio 추이(AAA 3년물)



자료: 인포맥스,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45. 카드채 Yield Ratio 추이(AA- 3년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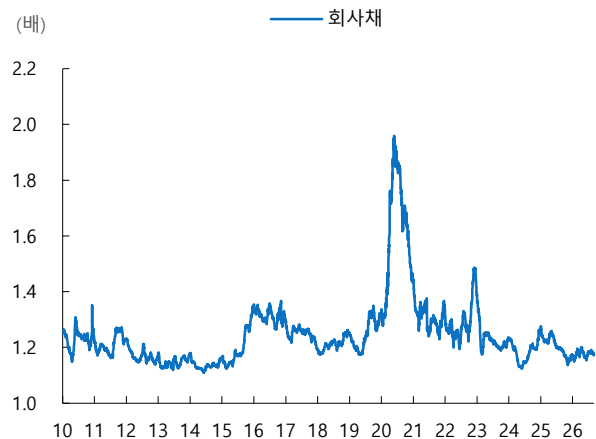
자료: 인포맥스,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46. 캐피탈채 Yield Ratio 추이(AA- 3년물)



자료: 인포맥스,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47. 회사채 Yield Ratio 추이(AA- 3년물)



자료: 인포맥스, iM증권 리서치본부

Compliance notice

- 당 보고서는 기관투자자 및 제 3자에게 E-mail등을 통하여 사전에 배포된 사실이 없습니다.
 - 당 보고서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이승재)
- 본 분석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따라서, 본 자료에 의한 투자자의 투자결과에 대해 어떠한 목적의 증빙자료로도 사용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작성자 및 당사의 허가 없이 전재, 복사 또는 대여될 수 없습니다. 무단전재 등으로 인한 분쟁발생시 법적 책임이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